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원인 분석 및 대응방법(8)

## 8.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한 양계농장 차단 방역 수칙 정리

### 1) 농장 입구 관리

○ 농장 입구는 항상 닫혀있어야 하며,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고 외부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차량외부를 충분히 소독하고, 차량 내부는 운전석을 포함한 발판 등을 소독하여야 하며(가급적 고무 발판 사용 권유), 운전자는 반드시 대인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량 외부는 일반적으로 'U'자형 소독기를 통과하거나 수동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는데, 주의할 점은 차량바퀴 주위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알 운반기구 및 적재함도 꼼꼼하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명록을 기록하게 하고 방역복 및 농장전용 신발을 착용하게 한다. 차량 GPS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농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겨울철에 소독장치 및 소독액이 동결되어 작동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다.



손영호

반석기금진료연구소  
반석LTC 대표/수의사

○ 계분운반차량과 같이 유기물이 다량 묻어 있는 차량은 별도의 구역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바닥에 떨어진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추가 오염을 방지하고, 알 운반차량, 깔짚 수송차량과 같이 타 농장의 출입이 빈번한 차량은 차량 및 운전자(사람)에 대해 강도 높게 소독을 실시한다.

○ 농장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관리자들은 외부 방문자와 동일한 수준의 소독 실시 후 농장에 진입하도록 한다.

○ 상차반, 예방접종팀과 같은 외부 용역팀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엔 개인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농장 전용의복과 신발 등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타 농장에서 사용한 일회용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휴대물 등을 소지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2) 계사출입 관리

○ 계사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계사전용 신발을 갈아 신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발을 갈아 신을 때는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계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소독액은 1~2일에 한 번씩 교체해주고 유기물 오염시에는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한다.

○ 계사에 장비 및 장구가 진입할 경우엔 소독을 실시한 후 진입하도록 한다.

## 3) 농장내부 소독

○ 계사주변(농장내부) 소독은 하루에 1~2회 이상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계사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차량이나 사람이 방문한 후에는 추가로 소독을 실시한다.

○ 사료빈 주변은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사료가 잔류되지 않도록 한다.

## 4) 계사내부 소독

○ 케이지사의 경우는 전실과 닭 그리고 계사 바닥 및 이동통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평사의 경우에도 전실 및 축사 내부의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5) 종란, 알 선별장, 보관소 및 상차대 소독

○ 종계농장은 종란소독실을 설치하여 종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산란계의 경우 알 선별장 및 보관소 바닥 등에 대한 소독을 매일 수차례(작업 후) 실시한다.

○ 종란 및 알 수송차량이 농장을 떠나고 나면 상차대 혹은 상차작업장을 말끔히 세척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 농장 내부로 재사용 난좌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6) 설치류 구제 및 야생동물 침입방지

○ 설치류나 야생동물은 AI 바이러스를 농장 내부로 유입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구서작업을 실시하고, 계사에 야생동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침입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한다.

## 7) 오염지역 방문 및 불필요한 모임 자제

○ 농장 관리자들은 철새도래지나 농경지 등을 방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방문하였을 경우엔 철저히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에 진입하여야 한다.

○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가급적 타 농장 방문이나 모임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 ※ 알 운반 차량 세척·소독 요령

-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 세척 실시
-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은 반드시 차량 소유주가 수거하여 처리
- ③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출입자 소독기에서 소독

○ 통제를 벗어난 일과후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임은 방역 상 농장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8) 외부 계군 도입시, 계군 출하시 주의사항

○ 계군을 이동해 올 경우엔 이동 예정 계군에 대한 임상관찰, 해당 농장 주변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등을 확인한 후 이동하고, 계군 이동 용역팀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농장에 진입시킨다.

○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는 계군 이동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소독여부를 확인하고, 출하 전 시군에 출하예정 차량번호 및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계군 도입시에도 발생농장과 역학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군 이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정보와 차량 GPS 부착 및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계군 출하시 도축장에서 실시한 출하차량의 소독상태를 확인하고 소독이 미흡한 차량은 농장에 진입시키지 않는다.

### 9) 폐사축 처리

○ 폐사축을 처리할 경우 폐사체를 농장 내에 방치하거나 개에게 먹이로 주어서는 안 되며, 교차오염을 방지할 적절한 방법(매몰, 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폐사축이 늘어나거나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한다.

### 10) 계분 반출

○ 농장에서 계군을 반출하는 과정이 외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계분처리 차량 및 장비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지역과 연관 여부를 파악하여 연관이 있을 경우 출입을 통제한다.

○ 계분처리를 외부 용역에 맡기는 경우 여러 농장과 연관된 이동관계로 농장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는 출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확인한다.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은 농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 참고 : 차량소독 요령 예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계